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위원장	결 재
				정현정	박영선	
개최일시	2018년 4월 12일 오후2시	회의장소	진리관 504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박종성, 오도석, 강영숙, 김민정, 김택동, 김선실, 김화경, 박소진, 신석하, 이재진, 조현오 (의장, 부의장 외 가나다순)	기록자(간사)	정현정	기록일	2018.04.12	
		불참의원	김영선			
		기타참석자	오중산(기획처장), 김귀정(대학원 교학팀장), 송일근(특수대학원 교학팀장), 김경욱(재무회계팀장)			
안건	1.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2.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3. 2017년 결산에 관한 자문 4.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3차년도 예산보고					
배포자료 및 기타	1. 2018년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안건 자료 2. 2017년 결산관련 자료 3.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일: 2018.03.03.)					
■ 심의(자문) 사항 1. 의장은 총 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의장은 안건으로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3. 대학원 교학팀장은 부의안건을 바탕으로 대학원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① 학사과정의 학과와 연계하여 석사과정에 글로벌서비스학과 신설 (학위종별에 국제학석사 추가) ② 학사과정의 학과와 연계하여 석사과정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 (학위종별에 공학석사 추가) 4. 의장은 본 안건이 평의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교무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되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그러하다고 답하다. 의장은 의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다. 5. 신석하 의원은 신설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대학원 교학팀장은 학부전공인 글로벌서비스학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것임을 답하다. 6. 강영숙 의원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신설되며 대학원에 공학계가 생기는 건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학부에 공대가 신설되었을 때 대학원에도 공학계 과정이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학칙개정에서는 공학계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추가 신설되는 것임을 답하다. 7. 신석하 의원은 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 신설이 특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신설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며 특수대학원과 대학원에 각각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이전에는 학부과정 교원들이 특수대학원 전공 신설을 진행하였기에 유사 전공이 있음을 답하며 시간이 흘러 현재 비전임 교원들이 특수대학원 학과 운영을 담당하면서 성격을 달리하게 된 배경을 부연하다. 8. 박소진 의원은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 간 코드웨어 교과목 개설 등을 통한 비용절감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답하고, 대학원 교학팀장은 규정상으로도 양 쪽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9. 의장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통과하다. 10. 의장은 두 번째 안건으로 특수대학원학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에 설명을 요청하다. 11.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부의안건을 바탕으로 대학원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김현자

정재

결
재

■ 심의(자문) 사항

- ① 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 신설에 따라 기존 글로벌서비스학과를 국제관계학과 및 세부전공(국제홍보전공, 공공외교전공) 신설하여 재편
- ② 향장미용학과 학장학 석사(뷰티케어) 신설
- ③ 정원 외 외국인학생에게 영문학위기 부여
12. 의장은 신설학과명이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국제관계학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교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명칭이 타 학과와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니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명칭변경을 제안하여 국제관계학과로 변경하였음을 답하다.
13. 신석하 의원은 뷰티케어전공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향장미용전공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기존 향장미용전공 초빙교원이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해당 교원의 세부전공인 뷰티케어가 전공으로 신설되었음을 설명하다.
14. 강영숙 의원은 약료경영전공에 전임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공을 폐지하는게 합당한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특수대학원 특성에 따라 교원채용당시 입학수요가 지속적으로 없을 경우 해당전공을 폐지한다는 등의 학과폐지 관련 내규에 해당교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며 학생수요가 지속적으로 없었던 약료경영전공이 그 수준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부연하다. 강영숙 의원은 2013년 약료경영전공 전임교원채용 당시 약대에서는 전임교원을 특수대학원 소속이 아닌 약학대학 소속으로 채용하여 그 교원을 특수대학원 약료경영전공 겸임교수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학교에서는 해당교원을 특수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였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약료경영전공이 전임교원이 채용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전공을 폐지하여 교원의 수업이 사라지고, 교원의 거취가 불분명하게 된 점에 문제를 제기하다.
15. 강영숙 의원은 약료경영전공 폐가가 해당 전임교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특수대학 교학팀장은 해당 교원의 학제개편에 따른 학과 폐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기존 재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교무처에서 해당교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소속 변경하여 유지하는 것이라 답하다.
16. 김택동 의원은 기업에서 비용을 투입할 때 투자 대비 수익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설명하며, 마찬가지로 숙명여대학만의 핵심역량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지가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며, 지금은 교육자 중심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아닌 학생 중심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학생중심에서의 시점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임을 피력하다.
20. 강영숙 의원은 약료경영전공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특수대학원 교학팀장은 2018학년도 진행된 특수대학원 학제 개편 규모가 커 학칙에 폐가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학년도별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별표] 내용을 보강하고, 학칙 변경사항에 “학제개편에 따라 [별표]의 학과로 변경” 문구로 대체하였음을 설명하다.
21. 의장은 특수대학원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을 통과하다.
22. 의장은 2017년 결산 자문을 안전으로 상정하고, 관련 설명을 요청하다.
23. 재무회계팀장은 2017년 결산 내용을 설명하다.
24. 의장은 올해 경상적자에 대해 질의하고, 재무회계팀장은 14년부터 연도별 경상수지에 대해 설명하다.
25. 강영숙 의원은 자문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 증감률이 아닌 수입 대비 지출에서의 손익발생 사유 및 손익에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정현자



결재

■ 심의(자문) 사항

- 대해 차 년도 대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신석하 의원은 예산투자 대비 결산 상 손익에 대한 큰 그림 제공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결산 상 손익의 예로 신설학과의 예산 대비 지출 및 수익 등의 내용을 제공해 준다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신설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며, 기존 진행된 프로그램 별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며, 그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을 제안하다.
26. 김택동 의원은 수입 대비 지출 증가에 대한 재정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생과 동문 중심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익을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재진 의원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결산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부, 단과대학, 대학원 별 수입 대비 지출 데이터가 있어야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자문이 가능하므로 관련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27. 의장은 결손 발생에 대해 비용과 수입 측면에서 타 대학 간 비교를 하는 등의 종합적인 분석 진행을 제안하고, 재무회계팀장은 타 대학 비교는 각 대학이 결산자료를 공시하는 5월 이후에 분석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28. 기획처장은 예산심의 당시 재정분석 자료를 제공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의장은 예산과 결산은 다른 사항으로 결산 때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함을 피력하고, 오도석 의원은 재무회계 팀에 수익을 분석하는 위원회나 별도의 조직이 없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등록금심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분석을 바탕으로 자문 받는 것을 답하다.
29. 기획처장은 1월 25일 회의를 통해 예산안 자문을 받을 당시 회의 자료로 관련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결산의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 분석내용을 보고하기로 하며, 평의원들에게 등록금 등 수입재원의 감소를 막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 예로 재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거나 공개강좌를 증대시키거나 효율적인 특수대학원 학제개편 등을 통해 재학생 유치를 진행하는 등의 자문을 주시면 그에 대해 적극 수용할 의지가 있음을 설명하다.
30. 김택동 의원은 결산에 있어서 일반기업은 재무 결산과 별도로 분석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음을 설명하며,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외부위원의 가장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위원회로 대학의 재정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각자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언급하며, 그러한 점에서 평의원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라는 조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결산 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아 줄 것을 당부하며, 법인전입금이 적은 대학 중의 하나인 숙명여대에서는 법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법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의원의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다.
31. 신석하 의원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서나 용인연수원 등의 부지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현재 신사업기획단을 운영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답하다.
32. 의장은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7년 결산자문을 마치다.
33. 의장은 네 번째 안건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이하 프라임사업) 3차 년도 예산편성안 보고를 요청하다.
34. 기획처장은 배포자료를 바탕으로 3차 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하다.
35. 의장은 의원들의 질문을 요청하다.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정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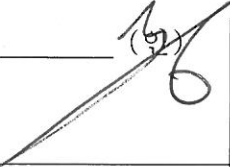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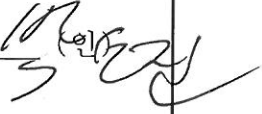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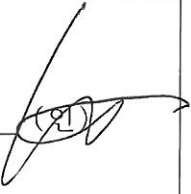
결
재

■ 심의(자문) 사항

36. 강영숙 의원은 프라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교비투입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교원의 인건비와 공과대학 장학금 지급의 건은 공대발전기금 등으로 대체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대학일반 재정지원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답하다.
37. 박소진 의원은 공대신설에 따른 연구비 수주가 장기적인 전략이었음을 설명하며 이에 따라 연구비 수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실적점검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공과대학의 연구비 수주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교수 채용 등 전략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현재 채용된 공대 교원으로 당장의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전반적으로 연구비 실적은 증가되고 있으나 연구비 실적 증대에 공대 신입교원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분석된 자료는 없음을 답하고, 다만 공대 교원들이 ERC 등의 대규모 연구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노력 중인 것을 설명하며 당장의 공대 실적을 볼 수 없으나 얼마 전 우리 대학이 수주한 브릿지 플러스 사업은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대 있기 때문에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부연하다.
38. 박소진 의원은 학과의 교원채용에 있어 기존학과 교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우리대학이 공대 신설에서 약대, 생활과학대의 기존자원과 연계하여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한 본부의 방향과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교원들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피력하고, 기획처장은 공대신설에 있어 본부에서는 기존학과들과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 제안을 하였으며 교원의 연령대와 배경도 다양하게 고려하여 연구 수주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급의 교원채용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교원이 우리대학에 오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39. 조현오 의원은 사추위에서 총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 프라임사업에 구성원들의 여론도 중요함을 언급하며 프라임사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과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획처장은 프라임사업을 통해 타과학생 대상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하며 앞으로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답하다.
40. 김택동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포럼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공과대학 학생이지만, 우리대학의 정원구조는 인문, 예체능 계열로 사회 수요가 맞지 않다는 내용을 논의하였음을 언급하며, 프라임 사업 수주와 공과대학 신설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가 있음을 피력하며, 당장의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숙대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시각을 가지기를 당부하다.
41. 박소진 의원은 컨설팅 회사가 어딘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 답하며, 이전 대비 현재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프라임사업단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파견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된 이유도 있음을 설명하다.
42. 박소진 의원은 교원들이 요청한 PWC 컨설팅 내용 전달 여부에 대해 묻고, 기획처장은 요청한 자문내역은 이미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답하다.
43. 의장은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를 마친다.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박 종 성 	부의장 오 도 석 
의 원 강 영 숙 	의 원 김 민 정 
의 원 김 택 동 	의 원 김 선 실 
의 원 김 화 경 	의 원 박 소 진 
의 원 신 석 하 	의 원 이 재 진 
의 원 조 현 오 